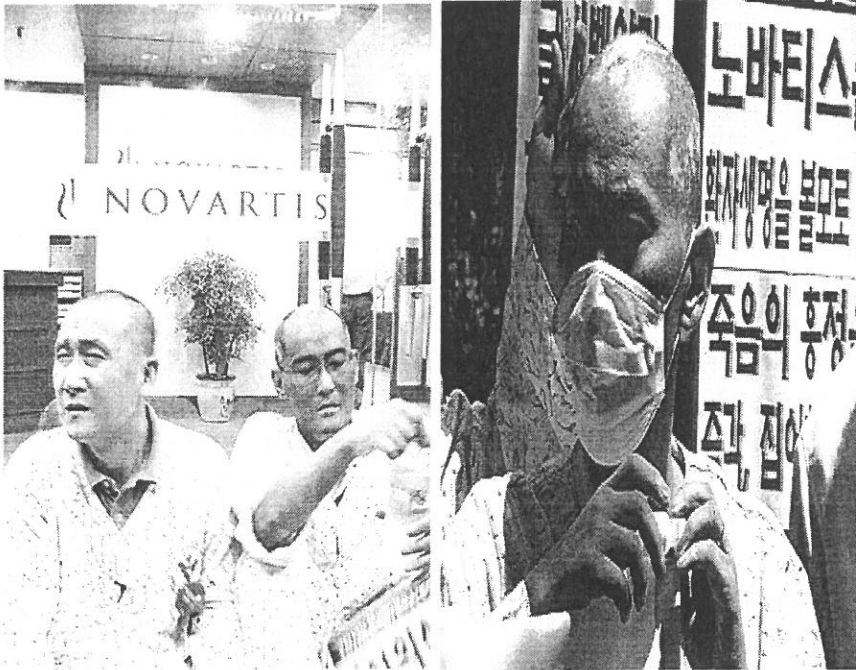


사랑사랑

제91호 (2002/7/24)

생명을 앞지르는 '홍청'



환자비상대책위, 글리백공대위 노바티스사 기습점거 (사진 참세상방송국)

(110-522)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8-29, 3층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http://www.sarangbang.or.kr>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rights@chollian.net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나의 인권이야기

사랑방과 10년을 보내며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새로운 인권운동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에 겁도 없이 품덩 뛰어든 것이 10년 전 이맘때였다. 인권, 인권운동이란 것이 세상에서 처음 대하는 낯말처럼 낯설었지만 뭔가 끌린다는 느낌만으로 시작한 일이 벌써 10년이 된 것이다.

서준식 선생님이 컴퓨터가 아닌 손으로 써오셨던 '한국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글을 놓고 토론하면서, 마차의 바퀴를 그려가며 '인권교육, 홍보, 자료' 등의 단어를 써넣으며 그런 일들이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권운동의 구상을 얘기할 때마다 "구상은 좋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시기상조다", "무슨 단체를 또 만들려고 하느냐"는 차디찬 반응을 경험하면서 92년 여름과 가을을 보냈다. 엉망으로 취했던 그 해 송년회는 '눈물'의 잔치였다. 우리 구상이 실현되려면 아직 먼 것 같으니 "헤쳐 모여"하자는 사실상 해산 선고에 그럴 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땡깡이 판을 친 밤이었다. 다행인지 아닌지 송년회 이후 '해산' 얘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이름도 없던 우리 모임은 93년 어느날 점심을 먹고 모여 앉아 모임의 이름을 정했다.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문턱 없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사랑방'이란 이름에 담았다. 뒷날 너무 찾는 이가 없을 때도 이름 탓을 했고, 좁은 사무실에 너무 많은 방문객과 자원활동가들이 뒤엎혀 앉을 의자가 없을 정도로 북적북적 났을 때도 이름 탓을 했다. 단체이름답지 못하고, 단체가 하는 일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름이었지만 '사랑방'이란 이름으로 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이름 참 지었다'는 반응도 심심찮게 만나게 되었다.

삼선교에서 봉천동으로, 낙원동으로, 용산으로, 서울역으로, 그리고 대학로로 옮겨오면서 사람도 살림살이도 많이 변했다. 의사결정구조나 활동가들의 생활방식에도 끊임없는 변화가 추구되었다. 나에게 '사랑방'이란 이름은 새로움이다. 사랑방은 '반복'을 싫어하는 성격의 나에게 매년 새로운 일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에게 '사랑방'이란 이름은 채찍이다. 고민과 사색이 깊지 못하고 조금하고 감정적인 나에게 항상 치열함을 요구한다. 처음 시작할 때도 몰랐던 것처럼, 지금도 인권과 인권운동이란 단어는 낯설지만 하다. 인권을 얘기하는 곳이 많아지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시늉만 하는 것과 진짜 인권운동다운 것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랑방이란 이름은 항상 '비뿔'이다. 전주행 기차를 타러가야 하는 조금할 속에서, 밤을 새우고 이제 막 소파 위에 쓰러진 동료를 지켜보면서 지금 10년을 순식간에 돌아보고 있다. 찬찬히 돌아보기를 나의 숙제로 남기며, 그동안 인권과 인권운동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확대경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

이창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지난 2월 25일부터 38일간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국가기간 산업이라 할 전력산업을 사기업에 매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발전노동자들은 강력히 반대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파업'투쟁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회사는 노동법상 '필수공익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사실상 '파업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터였으며, 결국 파업돌입과 동시에 불법의 낙인을 받아 노동자들은 수배 혹은 구속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4월 3일 발전노동자들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복귀 직후부터 새롭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산업 초유의 조직적 파업사태를 겪게 된 회사와 정부측은 파업참가 조합원들에게 본패를 보이듯 보복성 인권유린 조치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한 12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5월부터 두달 간 발전노조 파업종료 이후 벌어졌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처, 청평양수발전처를 비롯한 발전소 현장 방문, 발전회사 본사 방문, 산업자원부 방문 등을 통해 파업종료후 진행된 일련의 사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를 개최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전 노동자들은 현장복귀 직후 '서약서' 작성을 강요받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불법'으로 인정하고, 준법투쟁을 포함해 일체의 파업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유린하는 일이었으며, 노동자들 스스로는 깊은 모멸감과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파업 참가자 모두가 개별감사라는 이름 아래 개개인의 조합활동을 제약하고 개별적 양심을 유린당하는 굴욕적인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예컨대, △복귀 후 아침 출근집회 등에 참여했는가 △다른 조합원에게 집회에 참여하자고 권유한 적이 있는가 △민주노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80개에 달하는 질문에 대해 일일이 답변을 해야 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노동자 개개인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추후 유사한 쟁의나 조합활동 참여를 꺼리도록 만들려는 회사측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조치들입니다.

뿐만아니라, 회사측은 3천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총 2백 11억이 넘는 재산가압류 조치를 결정하고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노동쟁의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치로써, 조합원들의 생계를 직접 압박함으로써 자유로운 조합활동 및 노동기본권 행사에 심적 부담을 갖도록 만드는 조치입니다. 또한 회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부 조합원들부터 선별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노동자들 내부의 눈치보기와 반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을 비롯해 회사측은 일상적인 조합활동에 개입·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측은 인권단체 조사단의 공식방문조사를 거절했고, 심지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려는 조사단을 육탄으로 저지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전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의 근본원인으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따른 과속권 제한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조사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했던 인권단체들은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발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청와대와 산업자원부에 공식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조사보고서는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꿈파키블

이동수

꿈파란 '꿈꿈히 따지며 살자'의 준말이에요^^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붉은 악마’ 논평과 게시판 홍역

‘범용’ 이 인권하루소식 기자

지난 6월부터 한달 가까이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른바 ‘붉은 악마’ 논평과 관련해 홍역을 치렀다. 인권하루소식 6월 22일자 논평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아래 <논평>)를 통해 ‘붉은 악마 현상’에 대해 ‘레드 콤플렉스의 극복’이라고 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망발을 비판하는 등, 월드컵을 둘러싼 ‘광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인권하루소식의 <논평>이 이례적으로 연합뉴스의 기사거리가 됐고, 연합뉴스를 받아온 인터넷 한겨레에서 <논평>의 전문과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해 놓음에 따라, 급기야 인권하루소식의 논평은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논평>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때로는 하루 2-3개 정도의 게시물만 올라오던 사랑방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6월 23일 하루만 무려 150여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모두 <논평>에 대한 ‘논평’이었다. 그 다음날인 24일에는 300여 개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2-3주에 걸쳐 1천여개 가까운 글이 올라왔다. 차분하게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며 <논평>의 논리를 반박하는 글도 있었지만, ‘사이버 공격’이라 할 정도로 폭력적인 글도 상당수가 올라왔다. △사랑방에 대한 격분으로 감정적인 욕설을 자제하지 못하는 ‘홍분형’

△답변을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형’

△비논리와 말꼬리 잡기로 일관하는 ‘짜증유발형’ 등... 특히 ‘짜증유발형’은 자신의 글에 대한 리플(반박글)에 반드시 재리플을 다는 집요함도 보여줬다.

그런데 무엇보다 황당한 게시물은 편집장이나 운영자를 사칭하면서 사랑방에 대한 비난을 증폭시키는 ‘지능형’ 글들이었다. ‘지능형’ 게시물들은 ‘편집장’이나 ‘운영자’ 명의를 사용하면서,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며 ‘현재 진상조사 중으로 사태악화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앞으로 게시판을 폐쇄하겠다’며 사랑방 활동가의 이메일 주소를 운영자 이메일인 듯 올려놓기도 했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앞으로 비난 글은 사이버 수사대에 IP추적을 의뢰하겠다’는 식의 협박이었다. 정말 지능적이었다.

이에 사랑방은 △‘운영자나 편집자를 사칭하지 말라’는 리플을 달거나 △‘운영자를 사칭하는 글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공지를 올렸다. 또한 ‘게시판 폐쇄나 IP추적 의뢰 등은 사랑방의 입장이 아님’을 해명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사랑방에서 이런 게시물을 올리는 족족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지능형’이 ‘해킹형’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방은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에 진상파악을 요청했다. 이에 진보넷은 ‘운영자 비밀번호가 해킹당한 것 같다’는 답변을 줬다. 그리하여 비밀번호를 바꾸고 “인권운동 사랑방” 명의로만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네티즌들에게 알렸다. 그제서야 ‘지능형’의 사이버 공격은 멈췄다. 가히 테러 수준이었다.

우스갯소리로 사랑방은 이번 <논평>을 통해 매우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중요 인권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수백번 하더라도, 이번만큼 인권운동사랑방의 이름을 알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 주위 친구들 중 소위 '붉은악마 논평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도대체 <논평>의 어떤 논지가 사랑방을 그렇게 '유명'하게 만든 것일까?

사실 <논평>의 논지에 대해 내가 다시 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랑방은 이미 이례적으로 <논평>에 부쳐'란 2차 논평까지 상세하게 내보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논평>에는 '80년대 운동권 논리나 대학교 3학년 수준'을 뛰어넘는 진지한 고민이 담겨있음을 밝힌다. '너무 경직된 것 아니냐'며 맥락을 따져보지 않는 태도나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간단히 전폭적인 지지를 밝히는 태도 모두가 반갑지 않다.

<논평>은 △오늘날 국가 대항 경기가 부추기는 국가주의의 폐해를 △정권과 자본에 의해 대중의 탈정치화를 보다 교묘하게 조장하는 스포츠 시스템을 △새로운 현상에 대해 부화뇌동하는 지식인들의 치열하지 못함을 △붉은악마 현상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물결로만 생각하는 순진한 착각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화두는 일차적으로 진지한 자기성찰을 필요로 한다. 사랑방을 포함한 이 사회 전체가 '붉은악마' 현상을 바라보며 진지한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 <논평>의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러나 애초부터 흥분할 것도, 쉽게 반대할 것도, 또 쉽게 찬성할 것도 없었는지 모른다.

애초 사랑방이 <논평>을 쓰게 된 계기는 한 상임활동가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활동가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할 때부터 "그 정도 이겼으면 됐다. 이제 그만 이겨도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월드컵 열기에 나라가 온통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기본 인식 아래 △'붉은악마' 현상을 두고 '6월항쟁에 나타난 민중 에너지의 재현'을 과시했다는 등의 평가는 말도 안 된다 △'붉은악마' 현상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등 그 활동가의 논지는 <논평>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그 활동가는 과연 누구일까? 주위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여기에 답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사랑방의 다른 많은 상임활동가들이 그 활동가의 문제의식에 공감함을 표했으며, '붉은 물결 속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자발적이나 아니냐' 등의 논점에 이견이 있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붉은악마' 현상에 대한 찬양일변도의 '광기'를 피해가선 안 된다는 점에 모두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평>은 한국 축구 대표팀이 스페인 축구 대표팀과 4강을 겨루는 바로 그 날 인권하루소식에 게재됐다.

물론 <논평>에 대해 모든 상임활동가들의 평가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적으로 옳으며 더 이상의 추가 논평은 필요 없다'는 의견에서부터 '<논평>이 주장으로만 구성되었고 그 근거가 미약해 추가 논평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또한 비판의 대상이 붉은악마 '자체'인지, 붉은악마 '현상'인지, 지식인들인지 모호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특히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제기되는 진지한 문제제기에 답변하는 차원에서라도 추가 논평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결국 인권하루소식 역사상 유례 없이 <논평>에 부쳐'란 추가 논평을 쓰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붉은악마 현상'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위한 사랑방의 노력이었다.

월드컵은 끝났다. 그러나 월드컵에 대한 '광기'에 가까운 열광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있다. '맹목적' 애국심의 고취, 과연 의정활동을 했는지도 의심스런 정몽준에 대한 지지도의 상승, 6월 항쟁의 회화화, 그리고 레드컴플렉스가 안겨주는 고통에 대한 무더진 감각 등. '붉은 악마' 현상으로부터 긍정적 에너지를 뽑아보자는 토론들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건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사/업/보/고

(2002년 6월 넷째 주 - 7월 셋째 주)

인권교육실

1. 어린이 인권 캠프 준비

참가자 신청이 마감됐고, 프로그램도 확정됐습니다. 색종이를 늘어놓고 캠프 준비물을 만들고 함께 부를 노래를 고르는 등 캠프 분위기가 사무실에도 넘치고 있습니다. 어린이인권캠프의 자세한 프로그램은 진행 기록으로 작성돼 추후 홈페이지에 올려집니다.

2. 청소년아르바이트 보고서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을 심층면접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현재 여러 전문가들에게 감수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찾는 방향을 맞아 하나의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3. 강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숙명여대아시아문제연구소, 서울장애인연맹, 민예총 등의 초청으로 아동의 인권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입력이 끝났습니다.

2.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설계 완료, 수정 중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 입력 프로그램 설계를 끝내고, 몇 번의 시험운행을 거쳐 현재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하루소식 입력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료입력을 함께 할 자원활동가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인권팀

1. 부산교도소 수용자, 연속징벌중 사망

징벌 중이던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용자의 죽음을 두고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건은 지난 5월 23일 부산교도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징벌방에 수용중이던 배 씨(34) 씨가 출소를 8개월 앞둔 상태에서 밤 9시경 징벌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한 사건입니다. 배 씨의 죽음을 두고 유족들은 “교도소 측의 과도한 징벌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압박과 모멸 속에서 울분을 참지 못해 발생한 죽음”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교도소측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죽기 직전까지 징벌방에 3개월째 수감중이었고, 사흘간 손목과 발목에 수갑과 사슬 등의 계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배 씨가 지난

인권정보자료실

1. 나라별 인권현황 영문자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중

영문자료 입력의 끝이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내내 나라별 인권 현황(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미국/구소련·동유럽/유럽/중동) 영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인권법/국제회의 영문자료와 참고문헌 국문·영문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면 인권운동사랑방이

4월 타 수용자와 쪽지를 주고받아 2개월의 ‘금치’ 징벌을 받은 이후 또 징벌방안에서 교도관을 폭행하고 사동을 청소하는 다른 수용자를 식기로 때려 각각 2개월씩 모두 4개월간의 금치가 추가돼, 오는 10월까지 금치 징벌이 예정돼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건 간에 6개월에 달하는 연속적인 금치 징벌은 가혹한 인권침해입니다. 금치 징벌을 받게 되면 징벌방에 수감돼 서신, 접견 등의 외부교통이 완전히 차단됨은 물론 독서, 운동, 작업 등의 일상생활 역시 모두 금지됩니다. 따라서 교도소안에서는 금치처분을 ‘감옥 안의 감옥이’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역시 금치 자체만으로도 수용자에게 치명적인 육체적, 정신적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의사의 결정없이 금치 처분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당국은 별다른 고려없이 관행적으로 연속징벌을 주고 있어 문제입니다.

독일의 경우 금치는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된 위반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항정신성 약품의 반입이나 술에 만취돼 있는 등의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금치 기간 역시 수용자의 건강을 고려해 4주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집행은 반드시 의사의 감독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나 중대한 물리적 폭력 등을 행사한 경우에 만 45일이 넘지 않는 기간의 금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나아가 금치 중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1일 1시간 운동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징벌결정에 대해 도지사에게 행정소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달 배씨의 유족들을 만나 앞으로의 일을 상의했고, 우선적으로 ‘연속징벌’ 의 문제와 관련해 8월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2. 수형자 변호인 접견 제한에 대한 헌법

소원

기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 미결수는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변호인을 접견해왔지만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교도관의 입회 하에서 접견이 이뤄지거나, 일반접견에 의거해 접견회수가 제한되거나 불허되는 등 사실상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돼 온 것이 사실이라, 이번 헌법소원은 그 결정이 주목됩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수용자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교도소 내에서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변호인과의 접견을 요청했지만 교도소측이 일반접견을 준용해 이를 불허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수형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성상 교도소내의 부당한 처우나 교도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구금상태라는 제약과 자신의 직속 통제기관과 쟁송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거의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교도소 당국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수형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고, 시간과 장소 역시 제한해왔습니다.

한편 김 씨는 이번 헌법소원에 금치기간 중 제 3자와의 접견 및 서신수발을 제한하고 운동을 금지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함께 요청했는데, 현 행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치기간 중에는 징벌실 수용은 물론 일체의 접견과 서신, 운동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부디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기억사업관

1.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된 후 수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왔던 인권운동사랑방은 기획사업반의 책임 아래 모니터링과 대응활동을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격주로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참관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인권단체로서의 적극적 의견 개진 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홈페이지 개편안 마련중

옛 사회권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합해 기획사업반 홈페이지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사업반이 관여하는 주요 활동의 진행상황을 소개하고, 주요한 행사 일정을 공지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게 될 예정입니다. 게시판은 사랑방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게시판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3. 민간인학살 범국민위 가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위원회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권하루소식의 기획기사를 통해 민간인학살 문제의 실상을 공론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4. 공소시효 운동 상반기 활동 정리

올해 초 수지김 사건을 계기로 시작했던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운동의 상반기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모임을 가졌습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내에서의 공론화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법학자 및 변호사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8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의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대상으로 한 활동은 8월 8일 재보선이 끝난 후 가동할 계획입니다.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모임에서 상반기 내 내 준비해온 '반인도적범죄와 공소시효 자료집' 이 7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은주, 김명수, 윤광덕, 김숙현, 임윤희, 박유민 씨 등이 무척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5. 기획사업반 여름 수련회 갑니다.

자원활동가와 상임활동가 모두 함께 수련회를 떠납니다. 상반기 활동을 정리하면서 이후 어떠한 활동을 펼치게 될지 계획도 잡아보는 여행입니다. 장소는 휴가철이라는 사정을 감안해서, 서울에서 가까운 청평과 춘천 사이의 한적한 장소로 결정했습니다. 8월 3일(토)부터 1박2일로 다녀옵니다.

6.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공동주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7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1년여 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공론화를 위해 활동해 왔던 사회단체들과 국회 내 '나라와 안보를 생각하는 모임' 이 공동주최한 공청회에서는 사회단체들이 마련한 '대체복무제 입법안' 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사회단체들은 입법안의 통과를 위한 대중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 <사회권규약해설서팀> 노동의 권리, 노동조합결성권, 사회보장권 초고 작성 중

<사회권규약해설서팀>은 올해 상반기 2차 세미나를 마무리짓고, 초고 작업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초고의 주요 내용은 사회권규약 6조 노동의 권리, 7조 노동조합결성권, 9조 사회보장권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기본 내용을 소개하는 것.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이행의무를 정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존중·보호·실현의 의무와 함께 차별금지와 최소핵심이행의무를 추가하는 문제입니다. 고민이 정리되는 대로 사람사랑을 통해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회권규약해설서팀에서 맹활약을 해왔던 허혜영 씨가 석사논문을 끝내고 다시 해설서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논문 제목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고, 7월 29일 저녁 7시 인권운동사랑방 4층 세미나실에서 특강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랑/방/소/식

(2002년 6월 넷째 주 - 7월 셋째 주)

1. 내부 활동 점검을 위한 토론회 시작
 사랑방 내 각 사업영역의 장기적 발전방향 토론회를 위한 내부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권교육실에 관한 워크숍을 6월 29일에 가졌습니다. 인권교육과 병행해온 아동·청소년인권사업을 분리하는 문제, 인권캠프·강연 등의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장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문제, 지역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좀더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인권교육 현장 개발의 문제 등이 토론했었습니다. 다음 워크숍은 감옥사업을 다루며 7월 27일에 갖습니다.

2. 한국노동당 상대 손해소송 승소
 한국노동당은 97년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 “북한산술 팔아 자금마련” 등의 제목아래 인권운동 사랑방을 비롯해 민주노총, 민변 등 여러 노동·사회단체를 근거 없이 비방, 공격했습니다. 이에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해 1차로 승소한 단체들이 있었고, 인권운동사랑방은 7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내용은 한국노동당의 기사내용이 진실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이에 한국노동당은 인권운동사랑방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결의 조광희 변호사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힘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과장으로 파견돼 활동중인 박래군 상임활동가가 녹화사

업 진상규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녹화사업에 관한 증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녹화사업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인 증언을 권해 주십시오. (문의: 3703-5980) 한편 인권교육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팀의 요청으로 ‘인권의식의 확산을 위한 국가의 조치’란 주제하에 공동세미나를 두차례 가지고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의견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권고사항으로 담기게 됩니다.

4. 김정아 씨 휴직
 6회 인권영화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담당자인 김정아 상임활동가가 7-8월 두 달간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97년부터 인권영화제를 지켜온 김정아 씨는 재충전을 한 후 9월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5. 『인권교육길잡이』 교과서 수록
 인권교육실이 99년에 발간한 『인권교육길잡이』에서 ‘인권과 가치’에 관한 내용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읽기 교과서에 실리게 됐습니다. 이 교과서는 5년 동안 사용되며, 연간 70만부 가량 발행된다고 합니다.

2002년 6월 회계 보고

(2002년 6월 17일 - 2002년 7월 16일)

이월금 : 1,857,953 원	
수 입	지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익 3,041,410원 -하루소식 2,072,31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독료 1,814,650 기사배급 257,660 -간행물 판매 89,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깨어나일어나 7권 감옥의현실 1권 인권교육길잡이 1권 -감옥법령자료집 100,000원 -자료제공 140,900원 -방송인터뷰 60,000원 -그림엽서 판매 79,200원 -강연료 500,000원 ■ 후원금 5,727,38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후원 5,627,380 특별후원 100,000 ■ 재정사업 173,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비디오판매 8 개 ■ 은행이자 1,580원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 특별사업기금 전용 4,775,17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728,99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소식 우편발송 264,800원 -자료실 164,790원 -감옥인권팀 14,660원 -기획사업팀 3,000원 -교육실 1,310원 -사람사랑 제작발송 121,570원 -희망발송비 11,760원 -연대사업비 50,000원 -출장비 및 취재비 97,100원 ■ 활동비 3,500,000원 ■ 사무실유지비 1,416,410원 ■ 통신비 912,160원 ■ 사무비품 263,000원 ■ 사무국 식비 447,870원 ■ 생활비 87,060원 ■ 정기간행물 125,000원 ■ 사무실 환경개선 302,500원 ■ 기타 102,710원 ■ 건물 임대 보증금 5,000,000원
총수입: 13,719,040 원	총지출: 12,885,700 원
잔액: 2,691,293 원	

<2002년 6월 재정 세부내역>

- 행정덕씨가 특별후원금을 주셨습니다.
- 7월 10일, 사무실(4,5층) 재계약에서 보증금이 인상되어, 특별사업기금(4,775,190)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인권운동사랑방은 3층은 사무실로, 4층은 자료실과 세미나실, 5층 옥탑은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4,5층 임대 보증금의 총액은 5천 5백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1백 5십만원입니다. 월 임대료 중 50만원은 인권운동연구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지출에서 <사무실 환경개선>은 3,4층 창문에 새로 마련한 버티컬 비용입니다.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앉기 두려워했던 소파에 예쁜 천도 씌웠습니다.

<6월 후원금 납부 감사합니다> 가나다 순, 7/17일(지로는 7/15)까지

